

□ 해외 출장 보고

카자흐스탄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김 정 우

(어문자료연구부 학예연구사)

1. 개요

필자는 동덕여자대학교의 광충구 교수와 함께 1994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수도 알마아타로 출장을 가서, 그곳 한국 교육원에서 개최된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에 참가한 동포 한국어 교사들에게 국어의 어문 규범과 언어 예절 등에 관하여 약 2주간 강의를 했다. 이 글은 연수 내용과 아울러 현지의 한국어 사용 실태 전반에 관하여 연수 기간 동안 보고 들은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차후의 연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다음 2부에서는 필자가 연수 일정과 내용을 소감의 형식으로 간단히 적고, 3부에서는 광충구 교수가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실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로 한다.

2. 연수 일정

7월 8일 오전 10시 김포공항 제1청사. 아니나 다를까 평소의 명망(?)대로 비행기 출발 시각이 오후 2시 반으로 두 시간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로플로트 항공 출국 수속대 근처는 여행사들의 단체 여행객으로 벌써부터 붐비고 있었다. 이윽고 수속이 시작되자 약간의 긴장된 마음으로 수속대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처음으로 부딪힌 문제는 가지고 가는 연수 교재였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간신히 허용 가능한 짐의 중량을 다 채우고 나서도 교재의 무게만큼은 처리가 막막했다. 백방으로 수단을 강구한 정

호성 연구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20여만 원의 초과 중량 운송비를 물고 말았다. 단체 여행객들 사이에서 조금만 협조를 했으면 어떻게든 추가 부담이 없이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꼭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친절을 보이는 우리의 현대적인 국민성이 조금은 아쉬웠다. 어쨌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자 이번에는 또 지정 좌석이 없으니 아무 자리로나 앉으라는 무섭게 생긴 러시아 여승무원의 말이 또 한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러시아 항공이 과연 영망은 영망이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지정 좌석제를 지킬 수 없게 된 이유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아무 자리로나 마구 앉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슬그머니 머쓱해졌다. 신장된 국력을 꼭 그런 무질서의 과시로 표출해야 하는지 나부터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우리 나라의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비행기는 구름 위로 들어가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다인가 하고 내려다보면 바다가 아닌 흐린 하늘이었다. 지평선, 수평선과 함께 空平線(?)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정확한 항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탄 비행기는 동해로 나와서 러시아 동북방을 거쳐 西進을 거듭했다. 한참을 날아서 우리 시간으로는 벌써 밤이 되었을 즈음인데도 날은 오히려 밝아지기만 하고 있었다. 과연 '해를 따라 서쪽으로'라는 어떤 광고의 카피가 실감이 나는 비행이었다. 그렇게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가 탄 비행기는 모스크바 시내를 잠깐 보여 주더니 이내 쉐레메체보 제2공항에 착륙했다. 지루한 입국 심사를 거쳐 밖으로 나오니 이문직 한국학교장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알마아타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다섯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문직 교장의 주선으로 사할린에 거주하는 김 선생이라는 안내인과 러시아인 택시 기사를 소개받아서 간단한 모스크바 시내 관광길에 나섰다. 세계 유수의 국제 도시이건만 모든 간판과 안내판이 키릴 문자로 쓰여 있어서 키릴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답답한 여행이 되기에 십상이었다. 영어가 안 통하는 이렇게도 넓은 땅덩어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만 새삼스레 들 뿐이었다. 우리가 탄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접어들어 붉은 광장에 도착했다. 레닌 묘와 러시아 전통 양식으로 지은 사원을 둘러보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만 참배를 할 수 있었다는 레닌 묘의 한산한 모습을 보니 역사의 변천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는 길에 모스크바 대학에 잠시 들러 설립자 동상과 도서관 건물 등을 구경했다. 시간이 되어 알마아타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는데, 밤 열 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하늘이 흰했다. 말로만 듣던 백야(白夜)를 보니 문득 이국에 와 있음이 몸으로 느껴졌다. 대부분의 국내선이 출발하는 도모제도보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으려 했더니, 웬걸 우리가 탈 비행기가 예정에 없다는 것이었다. 재차 확인을 해 봐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 저것 묻고 있던 안내인 김

선생이 갑자기 쉼레메체보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두 시간! 정상적인 속력으로 가면 비행기가 연발을 하지 않는 한, 심중팔구 못 탈 상황이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 준 건 러시아인 택시 기사 할아버지였다. 그 험악한 모스크바 도로를 마치 심야의 폭주족처럼 거의 100킬로가 넘는 속력으로 달려서 쉼레메체보 제1공항에 출발 10분 전에 도착시켜 준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원래 옛 소련 국내선은 모두 도모제보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는데,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구입한 비행기로 운항하는 알마아타행 비행기만은 쉼레메체보 제1공항에서 이착륙을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 번 초과 중량 운송비를 부담하고 나서 겨우 알마아타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으니 '사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로 가는 비행기답게 사과 주스를 기내 음료로 제공해 주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동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라서 갈수록 창밖 전경이 흰해지고 있었다. 네 시간 반 정도를 날아 알마아타의 하늘 위에 도달했을 때쯤 해서는 사방이 완전히 찬연한 새벽빛에 싸여 있었다.

알마아타 공항에는 교육원의 변영중 선생과 동포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잘 도착을 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변영중 선생의 승용차로 숙소까지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본 알마아타의 아침 나절 모습은 한마디로 평온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울창한 나무들도 인상적이었다. 도착한 곳은 톨레비 거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원래 동포 학생이 살던 집이었는데, 수리를 위해서 비워 둔 것을 교육원장님이 연수 기간 동안 좀더 편안히 지내라는 뜻에서 일하는 동포 아주머니까지 한 분 떨어져서 우리에게 빌려 주셨던 것이다. 아파트 독채를 통채로 얻는 황재(?)를 한 우리로서는 원장님의 배려가 그저 고맙기만 하고 앞으로의 연수가 웬지 잘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 전까지 신계철 원장님, 변영중 선생과 함께 준비해 간 교육 일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간단한 현지 사정에 대해서 들었다. 착하디 착한 고려인 아주머니가 지어 준 따뜻한 점심을 먹으니 기내식에 놀랐던 목숨 기관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두 시 경 변영중 선생으로부터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이국에서 그것도 예전에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에서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다. 월요일에 있을 개강식을 기다리면서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했다. 동행한 광충구 교수는 일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고려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넬리 박 교수를 만나 사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10일 월요일은 대사님과 원장님, 교육원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변영중 선생의 사회로 개강식을 가졌다. 연수회에 참가한 동포 교사들에게 교육 일정을 소개하고 나서 간단히 개강식을 마친 다음에 김창근 대사님이 참가자들에게 김일성 사망에 관한 소감을 물

어서 3명의 교사들에게서 소감을 들었다. 섭섭함보다는 아무래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이야기들이었다. 개강식을 마치고 갖고 간 기념품과 관련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를 나누어 주었다. 원장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은 다음, 교포 학생 이라리씨 양의 안내로 서점을 둘러 보았다. 전반적으로 책이 별로 없었다. 북한 서적도 몇 권 있었는데 장정이 형편 없이 되어 있어 초라해 보였다. 나머지 오후 시간은 다음 날 있을 강의 준비에 할애했다.

다음날 비로소 강의가 시작되었다. 광충구 교수와 필자가 각각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무척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오후에는 박일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교포 사회와 푸슈킨 도서관의 한국 도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저녁 시간은 뜻 깊은 행사에 참가할 행운을 가졌다. 동포 작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던 극작가 한진 선생의 1주기 추모 연극 '봉이 김선달'을 레르몽트 극장에서 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원의 변영중 선생의 지도로 단원들의 말씨가 거의 한국어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바탕 흥겨운 판이었다. 저녁 식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관>에서 들었다.

다음날도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는데, 특히 2교시에 간단한 동요를 직접 맞춤법에 맞게 써 보는 연습을 했다. 관심은 높았지만 정작 결과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수 일정에는 이처럼 직접 쓰고 읽고 하는 실제 연습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광충구 교수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대화체로 각색하는 연습을 과제로 내 주었다고 했다. 점심은 김창근 대사님이 우리 일행을 초청해서 통일 연수원 관계자들과 함께 관저에서 들었다. 저녁에는 <한국관>에서 열린 통일연수원 주최 '통일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통일에 대한 열망의 정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인 14일과 15일에는 기본 문장의 구조와 활용, 시제, 표준 발음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15일 오후에는 변영중 선생과 이라리씨 양의 안내로 푸슈킨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도서 목록을 열람했다.

토요일인 16일에는 교육원의 최미옥 선생의 초대로 다차(러시아 별장)에 가서 푸짐한 점심 식사와 함께 샤슬리(양고기 구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모처럼 체제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18일 월요일에는 문장 성분과 한국 속담에 대해서 강의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앞서 목록만 열람한 한국 고도서를 직접 조사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도서관에 좀 덜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도서관 직원들의 눈빛에서 사회주의의 가장 큰 병폐를 읽는 것 같았다.

19일과 20일에는 조사와 경어법, 그리고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했다. 특히 광 교수의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은 현지의 신문, 방송 관계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교재도 지역적인 특성과 교육 대상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1일 목요일은 광충구 교수의 1교시 수업 우리 말의 예절을 끝으로 교육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오전 11시부터 원장님, 변영중 선생과 함께 수료 사정회를 갖고 교육 참가일수를 기준으로 총 35명의 수료를 인정했다. 서울 연구원측의 말로는 그 날 아침에 오는 행정 파우치편으로 새로운 수료증이 도착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육원 이호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져간 수료증으로 수료장을 준비했다. 러시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육원에 돌아와 보니 대사관에서 수료증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와서 급히 찾아가 다시 수료증을 만들었다. 급하긴 했지만 참으로 다행이었다. 저녁 시간에 열린 연구원 주최 수료자 간담회는 시중 정감이 넘치고 흥겨운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개강식과 마찬가지로 역시 대사님까지 참가해서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두들 진솔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여흥으로 부르는 노래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비록 북한식이긴 했지만 스스로 무대를 마련해서 춤을 보여 준 크슬오르다 여학생의 무용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공식 교육 일정은 끝이 났다. 나머지 시간은 몇 군데의 개인 농장을 방문 해서 방언 조사를 하고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귀국을 준비했다. 26일 오전 10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던 동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알마타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정오 조금 넘은 시각에 쉼레메체보 제1공항에 도착했다. 한국학교의 여영호 선생의 안내로 유춘근 교육관 댁을 방문하여 시원한 냉면으로 점심을 든 다음, 모스크바 대학에서 각각 경제학과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석운, 이학수 유학생의 도움으로 모스크바 대학 기숙사와 시내 대형 서점을 둘러보았다. 오후 6시 55분. 정든 얼굴, 고마운 얼굴들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모스크바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의 한국어에 관한 실태 보고

이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의 使用 實態, 한국어 敎育, 한국어 方言辭典 編纂, 韓國語 關係 文獻資料에 대한 조사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차후 이 지역에서의 效率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참고 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1)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개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는 수도인 알마아타에 16,000여 명, 크솔오르다에 12,200명, 카라간다에 11,500명, 우즈토베에 8,500명, 잠불에 13,400명 등 여러 도시에 약 10만 4천여 명의 同胞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 칭하며, 때로는 조선인 또는 한국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함북 방언에 基層을 둔 현지 한국어를 '고려말'이라 부른다. 이들 동포들은 1863년 함북 경흥에서 당시 기근과 학정을 피해 신친지인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래, 일제 시기까지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들의 후예이다. 이들은 대부분 1937년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의 우즈토베, 크솔오르다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며, 그밖에 일제 시기 사할린 등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사람,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도 있다.

보고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선대가 어느 때 어느 곳으로 이주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고령층은 희미하게나마 선대의 移住史를 기억하고 있었으나 40대 이하로부터 점차 연소한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선대의 이주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비례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세 이상의 노년층은 그곳 고려말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일상적으로는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고자와의 방언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략 연해주로의 이주 3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선대의 고향 방언을 간직하고 있었다. 일례로 친족 명칭에서 함경도 출신은 조부를 '큰아바이', 조모를 '큰아매', 백부와 외삼촌(어머니의 손위)을 '만아바이', 숙부와 외삼촌(어머니의 손아래)을 '아즈바니', 고모와 이모(각각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손아래)를 '아재'라 부르는 것이 그 예이다. 결과적으로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는 함북 지역의 호칭 체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보고자가 접촉한 40대 중반의 4명은 막연히 원동(포시에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나호드카)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실만을 말할 뿐 선대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이주하였으며 원동에서 선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거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러시아 문화를 접촉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로서 이미 어느 정도는 러시아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거의 말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歷史·文化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단지 김일성의 정치적 편력에 대해서만 단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의 역사 및 한국

의 발전상에 대해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韓國史'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씌어짐)가 배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대의 연소한 계층은 전혀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며 이들 중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현지 고려어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새롭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를 母國語 또는 자기 民族語라는 의식에서보다 장래의 진로 문제로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고자는 체류중 작년에 작고한 작가 한진 선생이 쓴 연극 '봉이 김선달'을 관람할 기회를 가졌는데, 관람객 대부분이 노년층들로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현지 지식인은, "젊은이들은 고려말을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것 같다."는 말을 들려 주었다.

(2) 한국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부 소관의 이 교육원에는 현재 원장(장학관)과 교사 1명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은 韓國語뿐만 아니라 한국의 文化·歷史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또한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수강생을 성인반, 대학생반, 학생반으로 나누어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문화를 강의하고 있었으며 수강 인원은 월평균 2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고자들이 참여한 한국어 교수 파견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시간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강생 모두가 짧은 교육 일정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현행 교과서는 이곳 교포들에게는 다소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곳 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차후 이 연수 계획에 파송되는 교수 요원은 국립국어연구원 등의 자문을 얻어 사전에 學習指導案을 별도로 작성하여 현지에서 適切하게 使用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육원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수강자들의 한국어 能力을 미리 點檢하고 그에 따른 수업 目標과 計劃을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파송 교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현지 고려어 또는 러시아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 한국어 연수 과정은 카자흐스탄 각 지역에서 선발된 韓國語 教師(이번에는 韓國語 전공 大學生들도 포함되었음)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어에 대한 體系的인 知識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한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다. 단순히 한국어에 대한 교육 차원을 넘어 民族의 올바른 역사를 소개하고 훌륭한 民族의 文化를 알려 민족에 대한 自矜心을 심어줌으로써 民族과 民族語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韓國敎育院과 한국어 연수 계획에 대하여 국

가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3)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

카자흐스탄에는 국립 카자흐 종합대학 기자학부, 국립 사범대학, 알마아타 외국어대 영어학부, 크슬오르다 사범대에 각각 한국어 전공 및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교수할 전문 교수요원이 없어서 많은 隘路를 겪고 있었다. 가령, 크슬오르다 사범대학에는 한국어를 전공한 교수 요원이 단 한 명도 없어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강의를 맡고 있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경우 會話 중심의 한국어 학습으로 호를 염려가 있고 또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로 또다른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안고 있다.

이곳 대학들은 한국어를 가르칠만한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또한 대학 자체가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 학자를 초빙할 수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병역 등의 혜택을 주어 한국어 전공자를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고려어 사전 편찬: 고려어에 대한 현지인들의 認識

현지의 고려인들 중에서는 현지의 고려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고려어를 공통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넬리 박 선생(카자흐스탄 아카데미 소속 학자로서 본디 러시아어 및 독일어 전공자)이다. 박 선생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지 한국어 방언을 수집하여 사전을 편찬하고 있었다. 보고자가 이 사전 원고를 열람한 결과 수록된 방언 어휘는 함북 육진 지역 방언이었다. 표제어는 육진 방언 어휘를 한글자모로 쓰고 그 밑에 다시 키릴 문자로 전사해 놓았다. 그리고 표제어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주석을 달아 놓았다. 넬리 박 선생의 다음 계획은 고려 방언을 기초로 한 문법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보고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고려어가 이들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어휘들도 적잖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표준어로 바꾸기란 쉽지 않으며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고려말의 단어를 일대일로 표준어로 바꾸기도 만만찮은 일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들이 고려어를 배우는 데에는 어휘습득 면에서 호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40대 이하의 사람들이 대개 고려어를 모른다는 점이다. 노년층에서만

주로 통용되는 고려어를 고려인 사회의 공통어로 정착시킨다면 40대 이하는 그 고려어를 새로이 배워야 한다. 그럴 바에는 표준어를 보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는 달리 교포가 한 지역에 밀집해 있지 않고 카자흐스탄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여건상 공공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고려말에 대한 교육을 계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려 방언을 기초로 한 공통어의 구상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5) 푸슈킨 도서관의 한국어 고도서

알마아타 푸슈킨 도서관에는 우리 유이민사의 슬픈 역사를 대변해 주는 고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보고자는 현지의 박일 교수와 한국교육원 변영중 선생의 도움으로 이 고도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고도서는 본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고려사범학교의 소장 도서로서 1937년 스탈린의 조선인 강제 이주시 이주민과 함께 크슬오르다(알마아타로부터 약 1,200 Km 서북방에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고려사범학교가 옮겨올 때 같이 왔으나 이 학교가 폐교되면서 이들 고도서의 일부는 개인이 가져가기도 하고 일부는 다시 알마아타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 이후 알마아타에서 이 고도서가 폐기되어 카자흐인이 태우는 것을 우연히 현지 교포 이병국 교수(화학전공, 76세로 작고)가 보고 그 카자흐 火夫에게 돈을 주어 대신 빨감을 사도록 하고 이 고도서를 기적적으로 구해냈다 한다. 이병국 씨가 얼마나 태웠느냐고 물으니, 그 화부가 "3일 동안 태우고 있다."고 하였다 하니 얼마나 많은 도서가 소각되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 박일 교수가 습기 찬 고도서를 600루블을 주고 맡았다 하며 또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목록을 작성하였다 한다. 그 이후 박일 교수의 집념어린 노력으로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 한다.

보고자는 푸슈킨 도서관에 소장된 이 고도서를 실사할 기회를 가졌으나 시간이 없어 충분히 관찰할 수 없었다. 담당자가 서고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대출 과정이 까다롭고 책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고작 몇 권만 열람할 수 있었다. 소장 도서는 "千字文", "類合"과 같은 한자 학습서를 비롯 "三韻聲集"와 같은 자전류도 있고, "妙法蓮花經"과 같은 佛書도 있었다. 그밖에 "耳談續纂", "東國通鑑", "通鑑", "朝鮮歷史", "文獻備考", "東國輿地勝覽", "國朝人物誌", "大韓地圖說", "燃藜室記述" 등이 있고 특히 "圃隱集", "眉巖集", "耳溪集", "訥齋集", "南冥集", "玉溪集", "勉齋集", "忘憂集", "樂泉集" 등 문집이 상당수 소장 되어 있었다. 이들 고도서는 현재 현지 변영중 선생에 의하여 분류 정리되고 있다.

(6) 현지 언론 기관의 활동과 한국어 사용 실태

카자흐스탄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전에 '선봉', '레닌기치'로 불린 '고려일보'라는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간행되고 있는데 한국어판은 독특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인정하고 있지만,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등은 북한의 맞춤법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남한의 어문 규범을 따를 것이라 함). 그리고 카자흐스탄 방송공사 내 국제라디오총국에서는 고려말을 비롯한 7개국 언어로 방송을 한다. 한국어 방송은 월, 수, 금요일에 각 20분씩 방송하고 일요일에는 30분 간 방송한다. 이곳 한국어 아나운서는 30년 동안 활동한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서 연수 중이라고 한다. 두 곳 모두 인적 자원과 재정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